

# TV 드라마 <마왕>의 추리 서사적 특성 연구

문선영\*

1. 서론
2. 수수께끼 플롯과 복수 플롯의 이중구조
3. 관계역전을 통한 인물형의 변화
  - 3-1. 대립관계의 역전
  - 3-2. 고정된 역할에서의 탈피
  - 3-3. 대립적 인물의 동일화
4. 새로운 소재활용과 주제의식의 강화; 싸이코 메트리
  - 4-1. 사건해결의 지연 ; 의문 증폭
  - 4-2. 문제해결의 가능성 제시 ; 긴박감 조성
  - 4-3. 기억의 재구성과 허구성
5. 결론

## 국문요약

TV 드라마 <마왕>은 추리 서사 요소와 특징을 지닌 드라마이다. <마왕>은 구조, 인물형, 소재적 차원 등에서의 변화를 활용하여 독특한 장르 드라마를 시도 했다고 보인다. 이는 연속극 형태 안에서 추리 서사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수수께끼 플롯과 복수플롯의 이중구조를 활용함으로써 흥미, 긴장감을 유지한 점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마왕>은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을 풀어나가는 수수께끼 플롯이 중심을 이룬다. 그러나 ‘범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둔 문제해결 방식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동기, 과정’ 에 중심을 둔다. 여기서 종결되지 않는 사건, 증폭되는 의문, 문제해결 지연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반복은 복수플롯이라는 또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전통적 추리 서사에서 요구하는 인물의 역할 범주를 이탈하여 변화된 인물형을 보여 주고 있다. 형사, 범인의 선악 대립 구도를 깨뜨리고 관계의 역전을 통해

---

\* 한림대 강사

고정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다. 결국 대립적 인물이 동일화 되는 과정을 통해 선과 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는 ‘싸이코 메트라’ 라는 독특한 소재 활용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마왕>에서 사건해결과 관련하여 ‘싸이코 메트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의 단서를 추리, 분석하는 인물은 싸이코 메트라이다. 싸이코 메트라가 제공하는 정보들은 의문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예측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도 한다. 이 점은 보다 다양한 예측 결과들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긴장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선악 자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추리 장르의 일반적인 특징인 오락성, 대중적 흥미 유발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장르 개발 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양화 된 드라마의 가능성을 열어 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추리서사, 이중구조, 수수께끼 플롯, 복수플롯, TV 드라마, 마왕, 싸이코 메트라)

## 1. 서론

드라마 <마왕><sup>1)</sup>은 추리 서사를 기본으로 하는 추리 장르에 속한다. 추리서사는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을 풀어나가는 수수께끼 구조를 가진 추리문학에서 사용된다. 추리 문학은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에서 그 기원을 찾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발전하여 대중적 서사 양식으로 자리 잡은 것은 19세기 추리 소설이盛行되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sup>2)</sup> 이 시기는 산업화된 도시의 범죄사건 중

1) KBS 수목 미니시리즈로 2007년 3월 21일부터 2007년 5월 24일까지 총20회 방영되었다. (김지우 극본, 박찬홍 연출, 배우 엄태웅, 주지훈, 신민아 외 출연.)

2) 추리 소설은 일종의 수수께끼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이디푸스 왕>에서는 스펡크스의 수수께끼가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여자의 얼굴, 사자의 몸뚱이, 새의 날개를 가진 스펡크스는 ‘아침에는 네 발, 점심에는 두 발, 저녁에는 세 발로 걷는 것이 무엇이나’는 수수께끼를 내고 답변을 내놓지 못한 테베인들을 죽이는 횡포를 부린다. 오이디푸스는 ‘인간이다’라고 정답을 말함으로써 테베를 구하고 왕이 된다. 스펡크스의 수수께끼를 풀었던 오이디푸스는, 이후 테베에 닥친 재앙의 원인인 라이오스의 살인범 역시 찾아

가로 인해 범죄에 대한 관심이 증폭 될 뿐 아니라 사건 수사 방식의 새로운 편성이 형성되고, 그에 따른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던 때라 할 수 있다.<sup>3)</sup> 또한 대중적 읽을거리가 성행되던 시기였으므로 추리 소설은 적절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 대중 서사 양식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것이다.<sup>4)</sup> ‘추리 서사’의 범주는 미스터리물, 범죄물, 스릴러물 등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이다.<sup>5)</sup> 그러나 추리서사라는 개념은 소설에만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서사란 이야기(내용)와 담론(표현)을 지닌 모든 텍스트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양식이기 때문이다.<sup>6)</sup> 그러므로 추리 소설 뿐 만 아니라 만화, 영화, 드라마 등 대중적 서사물에 반복, 적용되고 변형되어 왔다.

드라마 <마왕>은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을 풀어가는 수수께끼 플롯의 추리 형식으로 되어 있다. 전통적 추리 형식은 세 명의 주요 인물, 즉 희생자와 범인, 탐정이 벌이는

---

낸다. 즉 오이디푸스는 현대 추리 소설에서 사건을 해결하는 탐정과 동일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도정일, 『20세기의 오이디푸스』, 『문학동네』, 가을, 1997, 454~456쪽 참조).

- 3) 이정옥, 1950~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1, 184쪽.
- 4) 19세기 중반부터 일기 시작한 잡지 붐은 현실문제, 정보, 오락적인 기사와 함께 독자들의 관심을 멜로드라마, 범죄이야기 등으로 몰고 갔다. 특히 이런 소재의 이야기가 시리즈로 나오기 시작, 가판대에서 누구나 할값으로 사서 볼 수 있게 되면서 범죄 이야기, 멜로드라마는 더욱 인기를 모으게 되었다. 또한 폭발적인 인기를 모으게 된 것은 영화의 덕이라고 할 수 있다. (박광자, 『페터 누씨의 추리문학론』, 『뫼히너와 현대문학』, 한국뫼히너학회, 1989, 209~212쪽 참조).
- 5) 이브 뢰테르는 추리소설의 유형을 미스터리 소설, 범죄 소설, 서스펜스 소설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우리가 흔히 추리 소설의 도식적인 공식을 적용하는 고전적인 추리소설에 해당되는 것이 미스터리 소설이고, 현재 그 범위가 확산되어 범죄소설, 서스펜스를 양산했다고 보고 있다. (이브 뢰테르, 김정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 45~48쪽 참조).
- 6) S. 채트먼, 한용환 역, 『영화와 소설의 서사구조』, 고려원, 1991, 24~25쪽.

수수께끼의 논리 싸움을 위주로 한다. 그 속에는 세 가지의 주요 국면, 예컨대 살인, 조사, 해결과정이 있다. 말하자면 일반적인 추리 형식은 살인이라는 범죄와 그것을 조사하는 과정, 그리고 결말로서 범죄의 해명이나 범인의 체포와 같은 사건의 종결을 담고 있다. 따라서 사건의 발생으로부터 사건의 종결로 이어지는 구조이다.<sup>7)</sup> <마왕>의 경우도 세 가지 요소를 충족시키고 있는 추리서사 구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제시된 수수께끼의 해결에만 목적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즉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고 범인을 잡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남게 된다. 표면상 종결된 사건은 해결되지 않은 의문들에 대해 다시 질문하게 만들고 보다 분석적인 추리를 요구한다. 즉 ‘범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동기, 과정’에 중심이 있는 것이다. 사건은 쉽게 종결되지 않으며 의문은 증폭되고 문제해결은 지연되는 상황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반복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일정한 목표로 진행된다.<sup>8)</sup> 이러한 목표는 개인적인 복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는 이 작품의 또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즉 수수께끼를 푸는 인물(형사)과 관계된 범인이 주체가 되는 복수플롯을 이룬다. 그러므로 <마왕>은 범죄사건 해결 중심의 수수께끼 플롯을 표면화하는 동시에 개인의 복수완성이라는 복수플롯을 내재하고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는 범인과 형사라는 관계역전을 통해서 고정된 역할에서 탈피하는 점과 연결된다. 범인과 형사라는 선악의 대립적 구조를 떠나서 다원화된 세계의 의미에 대한 철학적 고찰을 요구하는 것이다. 또한 ‘사이코 메트

7) 이정옥, 「추리소설과 게임의 플롯」, 『현대소설 플롯의 시학』, 태학사, 1999, 199쪽.

8) <마왕>의 이러한 특징은 “인물들이 나선형으로 얽히면서 현재의 사건을 발생시키는 이야기 구조”라고 논의된 바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피비우스의 띠처럼 얽힌 이야기가 잠시라도 한눈을 팔면 극적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시청률과 관련하여 언급하고 있다. (윤석진, 『김삼순과 장준혁의 드라마 공방전』, 북마크, 2007, 48~52쪽 참조.)

리' 라는 독특한 소재의 활용을 통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며 진지한 주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시도를 보인다. '싸이코 메트리'는 문제를 파악하는 데 혼동을 줌으로써 긴장감을 유지 하는 동시에 문제의 근원을 밝히는 데 해설자 역할을 한다. 이러한 기능은 문제의 사건으로부터 객관적 거리를 확보함으로써 편향된 시각을 조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글은 드라마 <마왕>에 적용된 추리서사의 특징을 분석하고 그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는 데 목적을 둔다.

## 2. 수수께끼 플롯과 복수플롯의 이중구조

<마왕>은 표층적으로는 형사가 의문을 풀어가며 범죄사건을 해결해 가는 구조로 되어 있지만, 그 모든 사건이 형사와 관련되어 있고 사건 해결 과정 속에서 복수가 드러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다시 말해서 <마왕>은 추리플롯을 표층화 시키고 있지만 그 심층에는 복수플롯을 내장하고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sup>9)</sup> <마왕>은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9) 패터 누서는 범죄소설을 추리소설과 스릴러 둘로 나눈다. 추리소설은 살인이 이미 일어난 뒤에 탐정이 예리한 분석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그린다. 여기서는 흔히 혐의자들이 등장하여 독자를 혼란시키고 사건을 더욱 미궁으로 몰아간다. 탐정소설은 일어난 사건에 대한 성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줄거리 진행은 후진적이다. 반면 스릴러에 있어서는 금방 발각된(또는 현재 진행 중인) 범행을 탐정 또는 경찰이 추적한다. 도주와 추적의 장면이 매우 긴장감 있게 묘사되며 따라서 범행의 내용보다 범행자나 추적자의 개성이 더 강조되는 수가 많다. 또한 추리소설의 내용적 요소를 크게 행위, 분석, 미스터리 세 가지로 규정하는데, 이 중에서 분석과 미스테리를 추리소설의 본질적 특성으로 행위 요소를 스릴러의 특징으로 보았다. (Peter Nusser, *Der Kriminalroman*, 정항균, 추리소설의 경계 변천 고찰(1), 『비휘너와 현대문학』 26, 한국비휘너학회, 2006, 167~168쪽 재인용.) <마왕>은 미스터리한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추리서사의 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그 사건이 연속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점, 범인의 시점이 드러나는 점 등으로 시칭자는 목격자 역할을

살인 사건의 범인을 찾는 형사 강오수를 중심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형사에게 예고 메시지가 도착하고 사건이 일어나며, 장수나 검거를 통해 범인이 잡히기는 하지만, 배후조정자(실질적 범인)는 밝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공 형사는 예고된 메시지를 분석하여 범인을 추리해야 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즉 드라마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사건예고 → 사건발생 → 사건수사 → 사건종결  
 (타로카드도착) → (현장에서 타로카드발견) → (싸이코 메트리의 도움) → (범인 찾아냄)

형사 강오수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타로카드를 받는데 이것은 사건이 후 현장에서 발견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 타로카드는 사물과 연관된 기억을 읽을 수 있는 싸이코 메트리 능력을 가진 서해인이 직접 그린 카드이다.<sup>10)</sup> 타로카드가 사건의 열쇠라고 생각한 형사는 서해인의 초능력을 도움으로 사건을 추리, 분석해가면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작품 전체 큰 구조가 ‘수수께끼 제시→추리과정→수수께끼 해결’이라는 추리서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마왕>은 유사 사건을 추리, 분석하여 범인을 잡거나, 원인을 밝히는 것에서 그치

---

하고 긴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스틸러적 요소가 강하다. 그러나 단순히 도주, 추적에서 오는 행위만을 다룬 것이 아니라 복수라는 형태가 중요한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다.

10) 싸이코메트리(Psychometry)는 영혼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Psyche’ 와 측정을 의미하는 ‘Metron’의 합성어이다. 이 용어는 1842년 미국의 학자 J.R. 부캐넌에 의해 제창되었다. 싸이코메트리는 물체가 그것과 접촉하는 인간의 사념을 대부분 기억한다는 사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즉 물체에는 그 물체를 거친 인간들의 각종 사념이 묻어 있고 능력자는 물체와 접촉하는 것으로 그 기억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싸이코메트리는 객관적 대상을 정신집중의 매개체로 하여 의도한 상황을 투시할 수 있는 초능력으로 이해된다. (김남훈, 「<마왕> 미궁으로 인도하는 Keyword」, 『드라마티』 20호, 페이퍼하우스, 2007, 41~42쪽.)

지 않는다. 그 이유는 형사가 발생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으며, 결국 사건의 원인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형사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이다. 형사 강오수는 반복되는 사건 발생과 그에 따른 추리과정을 통해 자신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음을 알아간다. 범죄사건은 12년 전 과거 사건과 연루된 사람들을 희생자로 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12년 전 사건과 동일한 방법으로 당시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있다. 12년 전 강오수는 학교 폭력 가해자였고 실수로 정태훈(오승하의 형)을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받아 법적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국회의원인 강오수의 아버지 강동현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강오수에게 유리하도록 만든 것이다. 현재 발생하는 전체 사건의 범인은 사건관련 담당 변호사인 오승하이며, 그는 정태훈의 동생인 정태성임이 밝혀진다. 그러므로 강오수가 사건을 추리, 분석하여 범인과 범행 동기를 알게 되는 과정은 과거 피해자 가족인 오승하가 강오수의 과거 죄의 대가를 처벌하는 행위, 즉 복수플롯의 구조를 띠게 되는 것이다.

오승하는 12년 전 진실을 묵인했던 인물들을 동일한 방법으로 처벌한다. 오승하는 당시 유일하게 12년 전 사건에 대해 사실 그대로를 진술하였던 싸이코 메트러인 서해인의 ‘타로카드’를 사건예고로 이용한다. ‘타로카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강오수와 사고 당사자에게 배달되는 방식을 취한다. 오승하는 12년 전 과거 사건을 가해자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의 최종 목적은 당시 사건의 가해자였던 강오수를 과거로부터 호명하고 같은 상황 속에서 죄의 대가를 묻는 것이다. 작품에서 실질적 사건은 총 5회 일어나는데 모든 사건의 범인은 12년 전 사건 관련자와 가해자를 처벌하려는 오승하이다. 하지만 그는 전면에 등장하여 살인을 저지르지 않고 배후 조종자로서 타인을 이용하고 있다.<sup>11)</sup>

11) 오승하는 범죄 사건을 조정할 뿐 행동적 참여는 하지 않는다. 공범 김영철에게 지시하여 사건이 발생하도록 구성할 뿐이다.

가해자를 제거하거나 섬멸하는 것이 전형적인 복수의 방식이다. 이와 달리 <마왕>은 12년 전 사건 관계자들로 하여금 유사한 상황(사건)을 재현하게 만들고 과거 사건을 환기시킴으로써 처벌하고 있다. 즉 악인(가해자)을 직접적으로 징벌(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역전시킴으로써 간접적 처벌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오승하는 12년 전 과거 사건을 환기시키는 사건을 발생시키며 강오수에게 죄를 심문하는데, 이는 두 가지로 나누어 정리해 볼 수 있다.

<A사건 형태>

12년 전 과거

현재

가해자	피해자	종결방식	가해자	피해자(12년 전 사건 관련자)	판결
강오수	정태훈(오승하의 형)을 실수로 죽임	정당방위 무죄	조동섭	권변호사	정당방위 무죄
			김정연	윤대식	정당방위 무죄
			황대필	성준표 기자	무죄

A사건의 형태는 12년 전 강오수가 정태훈을 죽음에 이르게 했음에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은 사건을 재현하면서 벌어진다. 현재 사건의 피해자들은 모두 12년 전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이라는 점이 공통점이다. 권변호사는 12년 전 강오수 사건 변호인이었으며, 윤대식은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 중 한 명이다. 성준표는 당시 강오수 편에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이다. 이들은 과거 자신들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의해 희생된다. 즉 현재 사건의 범인들은 죽은 자들에게 불합리한 대우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인물들이다.<sup>12)</sup> 그들은 과거에는 피해자였으며 법적 보호에서

12) 조동섭은 권변호사의 잘못된 변론으로 인해 단순절도임에도 10년형을 실형 받은 적이 있으며, 이에 대해 사과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인물이다. 김정연은 사채업자 윤대식에게 채무관계로 협박당하고 있으며, 황대필은 성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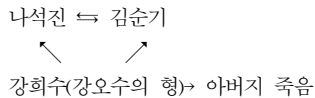
제외된 사회적 소외자라는 특징을 띤다. 또한 피해자들(권변호사, 윤대식, 성준표)은 이들에 비해 사회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적 처벌에서 제외되었거나 도의적 책임을 회피했던 인물들이다. 배후 조정자 오승하는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적 조건을 마련해 준다. A사건의 범인들은 실제적 범인(오승하)에 의해서 법적 보호를 받게 되면서 정당방위로 무죄판결을 얻게 된다. 세 개의 사건들은 의도하지 않았던 살인으로 가해자가 무죄판결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때문에 이 사건의 목적은 강오수로 하여금 자신의 과거행위가 정당한가를 자문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반복되는 연쇄 살인 사건은 형사 강오수에게 발생하는 사건들이 자신의 과거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한다.

<B사건 형태 >

12년 전 과거

현재 사건

정태훈(오승하의 형) 죽음 → 어머니 자살



B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은 오승하가 복수하고자 하는 최종적인 지점에 있는 사건들이다. 12년 전 사건으로 오승하의 형이 죽고 그 충격으로 그의 어머니가 자살했다. 그러므로 현재 발생하는 사건은 강오수의 가족에게 향해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사건의 인물들은 강오수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친구 및 가족관계들이다. 나석진, 김순기는 12년

전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친구들이다. 사건B는 사건A처럼 연루자들의 죄를 묻는 한편 보다 은폐된 사실들을 범죄의 동인으로 삼고 있다. 상대방의 약점이나 비밀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줌으로써 서로를 의심하고 공격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는 강오수의 형 강희수가 살인자가 되고 아버지 강동현이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은 단지 범죄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최종 목적대상에 점차적으로 접근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B군의 현재 사건들을 통해 강오수는 범죄 사건에서 객관적일 수 없게 되며, 자신과 가까운 관계의 파멸을 목도하게 된다. 사건은 12년 전 과거와 유사한 상황을 만들어 강오수에게 과거사건과 대면하도록 한다. 이제 강오수는 객관적 거리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입장이 아니라 스스로의 과거로부터 위협 당하게 된다.<sup>13)</sup> 강오수는 형과 아버지를 잃고, 과거 12년 전 피해자 오승하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된다.

	가해자	피해자	
사건1 (과거)	강오수	오승하	오승하의 형이 죽고 어머니가 자살, 오승하가 강오수에게 복수하려고 함
사건2 (현재)	오승하	강오수	강오수의 형이 살인자가 되고 강오수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죽음, 강오수가 오승하에게 복수하려고 함

13) 강오수는 드라마의 1/3의 지점(6회)에서 싸이코 메트릭 서해인을 통해 12년 전 과거사건 발생지(학교)를 찾아 가게 되고 연쇄살인사건이 자신의 과거와 결부되어 있음을 짐작하게 된다. 이후 사건 수사의 초점을 과거사건과 연관 짓기 시작하면서 용의자를 추적한다. 드라마의 중반부(10회)에서부터 오승하의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오승하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게 된다. 오승하가 정태훈의 동생이며 현재는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고 있다는 반전이 시청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수하는 자로써 입장, 오승하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한다. 그러나 강오수가 오승하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드라마 2/3 지점(16회)이후이다.

사건1과 사건2는 같은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결국 과거 피해자였던 오승하는 가해자였던 강오수를 동일한 살인사건의 피해자로 만듦으로써 강오수를 처벌한다. 강오수는 피해자가 되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죄와 대면하게 됨으로써 죄를 인정할 수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없는 딜레마에 처하게 된다. 그러므로 <마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죄를 응징하는 복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형사(강오수)가 사건(A,B)을 추리하면서 범인(오승하)을 밝히는 수수께끼 플롯이지만, 강오수의 추리과정은 자신이 범인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강오수가 사건을 추리하여 증거자료를 획득하여 사건 해결에 접근해 갈수록 오승하의 복수는 완성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 3. 관계역전을 통한 인물형의 변화

#### 3-1. 대립관계의 역전

<마왕>은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관계된 인물들의 다양한 양상을 그려가며 선악의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12년 전,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피해자 가족으로 살아왔던 오승하는 연쇄적 범죄사건을 통해 되묻는다. 오승하에 의해서 조정당해 실제 살인을 행동으로 옮긴 인물들(조동섭, 김정연, 황대필)은 모두 자신에게 부당한 피해를 준 대상을 제거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오승하는 이들에게 무의식 살의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살인의 계기를 마련해 준 오승하는 이들의 변호를 맡음으로써 법적 무죄를 선고 받게 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을 수사하는 강오수와 범인들의 변론을 맡은 오승하는 12년 전 과거와 입장이 바뀐 상태에서 만난다. 오승하가 배후 조정

한, 사건의 목적은 강오수에게 과거를 기억나게 하기 위함이다. 오승하는 형사인 강오수로 하여금 12년 전과 동일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을 통해 가해자였던 과거를 기억하도록 강제한다. 즉 범인들의 실수에 의한 살인은 표면상으로 볼 때 강오수가 과거 저지른 살인행위와 같은 것이다. 강오수 또한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으나, 정태훈을 죽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그는 형사 위치에서 피해자 입장을 대변하는데, 12년 전 사건과 비교할 때 모순된다고 볼 수 있다. 즉 12년 전 강오수는 정당방위로 죄를 방면 받은, 현재 자신이 수사하는 범인들과 같은 입장이었다. 그러나 현재는 그들의 죄에 대해 묻고, 피해자 가족 편에서 수사를 진행하는 위치인 것이다.

S# 10

오수 (단호하다) 상해 치사든 살인이든 죄 없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승하 (본다)

오수 퇴직 후엔 손자와 낚시하던 것이 소망이던 한 사람의 인생을 여기 있는 변호사님의 의뢰인이 한 순간에 끝내버린 겁니다.

... 중략 ...

승하 전 경찰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 의뢰인을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오수 저 역시 변호사님이 아니라 피해자를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마왕> 3회

권변호사 사건과 관련하여 범인의 정당방위를 변론하는 오승하의 입장과 대립하여 강오수는 살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힌다. 강오수가 조동섭의 행위에 있어서 문제 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결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강오수의 대사는 12년 전 자신의 행위와 반대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과거 자신의 정당방위에 문제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 오승하는 변론과정을 통해 과연 결과만을 가지고 이들을 악한 행위자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

을 제기한다. 범인들의 행위는 의도나 계획을 가진 것이 아닌 우발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이다. 때문에 오승하는 목적을 가진 살인이 아니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행동들에서 벌어진 사고였다는 점에서 정당방위이며 사건이 무죄임을 입증한다.

S# 48 법정(낮)

승하 피고인이 칼을 들고 위협하는 피해자의 태도에 격앙되어 몸싸움을 벌이던 중 실수로 넘어지면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라는 것은, 이 사건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테이프 내용에 의해서라도 너무나 명백합니다.

-권현태의 아내와 아들, 분노에 찬 표정을 승하를 노려본다.

<마왕> 13회

오승하의 변론과정은 12년 전 사건 시점으로 본다면 가해자 편에 서 있는 것과 같다. 결국 그가 배후 조정 한 범인들을 죄에서 방면해주는 변론과정은 과거 가해자인 강오수의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오승하는 과거 동일한 사건의 반복을 통해 강오수의 죄를 처벌하고자 함에서 강오수의 정당방위를 이해하게 되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의 상반되는 위치에서 선 그들은 12년 전 역할이 역전된 상태에서 대립관계를 설정한다. 이들은 형사와 변호인으로서 현재 사건에 개입되어 있는데, 자신의 역할에 충실 할수록 12년 전 사건에서의 상대방이 된다. 즉 과거와 현재의 역할이 역전된 상태에서 자신들이 기억하는 과거 사건에 대해 의심하게 되는 것이다.

### 3-2. 고정된 역할에서의 탈피

전통적 추리서사에서는 범인을 쫓는 자, 즉 형사(경찰)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다. 형사의 관심은 누가 범인이며, 범행 이유만을 찾아내는 데

있으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인을 검거하면 된다. 형사는 객관적, 합리적인 추리능력을 통해 범죄 사건을 종결지음으로써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sup>14)</sup> 또한 범인의 존재와 범행 동기가 형사에 의해 밝혀지는 인물 구성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형사가 항상 승리하는 폐쇄적인 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에서 형사는 이성적이고 냉정하며 사명감이 투철한 인물로 그려진다.

<마왕>에서 형사 강오수는 의무나 사명감이 강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전통적 추리서사의 인물형에 부합한다. 그는 과거 사건에서 벗어나기 위해 형사라는 직업을 선택했기 때문에 형사라는 역할에 지나치게 충실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그는 근본적으로 형사로써 부합되지 않는 조건이 있다. 과거 사건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은 범죄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결말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는 자신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는데 실패한다. 그는 자신의 주변인물들이 용의선상에 오르거나 피해자가 되어 불안한 상황에 빠져도 해결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추리장르에서 형사가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오승하가 12년 전 사건을 재현하는 최종적 지점은 강오수를 과거 자신과 동일한 상황에 놓이게 하는데 있다. 이것은 강오수와 가장 가까운 관계의 붕괴에서 시작되며, 형사로써 객관적인 행동을 할 수 없게 됨을 의미한다.

나석진은 강오수 편에서 배려하는 친구이며, 강희수(강오수의 형)의 비서관이다. 그러나 나석진은 강희수의 아내(나희)와 오래전부터 연인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오승하는 나석진의 숨겨진 이중적 면모를 이용하

14) 추리장르에서 탐정(경찰)은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탐정의 역할은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가능해지는가’를 입증해 주는 데 있다. 즉 탐정은 비합법적인 진행순서를 합법적인 순서로 변형시키는 것, 즉 정상상태의 재확립을 보장해준다.(슬라보예 지젝, 김소연, 유재희 역, 『삐딱하게 보기』, 시각과언어, 1995, 123쪽.)

여 강오수 주변 인물을 위협에 처하게 만든다. 오승하는 또다른 친구 김순기에게 나석진의 비밀이 담긴 사진을 타로카드와 함께 택배로 보낸다. 김순기에게 이 사실은 나석진을 통해 이익을 챙기려는 수단이 된다. 이는 강오수로 하여금 가까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할 조건을 마련해둔 것인데, 나석진, 김순기는 자신의 이익이나 사실은폐를 위해 사건을 예고하는 택배를 받았음에도 거짓을 말한다. 강오수는 마지막 남은 친구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사건발생마다 이루어진 규칙들을 주변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은폐하고 서로를 신뢰하지 않음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또한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신뢰가 무너지며 상대방을 의심하는 관계가 된다.

오승하는 12년 전 사건 현장 목격자들에게 진실을 왜곡한 죄의 대가를 묻고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12년 전, 사건 현장에 있었음에도 진실을 은폐했었으며 그것은 친구를 위한 일, 신뢰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오승하는 같은 이유 때문에 상대방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과정을 보여주며, 그럼으로써 목격자들을 처벌한다. 또한 강오수에게 객관적 거리유지를 상실하게 함으로써 형사의 역할에서 흔들리게 한다. 결국 이 사건은 강희수(강오수의 형)를 살인자로 만들면서 강오수에게 형을 잃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데 있다. 오승하는 강희수에게 나희와 나석진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강희수는 자신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이 사실을 은폐하려고 나석진을 이용하여 김순기를 제거한다. 살인을 위장, 은폐한 죄로 강희수는 살인자가 되는데, 이는 결국 강오수로 하여금 12년 전 오승하와 동일한 상황 속에 놓이게 함으로써 강오수에게 과거 기억을 재생시키는 기능을 하고 있다. 강오수는 자신의 친구 및 가족의 피해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력을 잃게 되며, 형사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 그는 형사라는 정체성을 지키고 법적 제도 안에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범인의 실체가 드러나고 범죄사건의 전말이 밝혀지

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지 못한다. 이는 사회적 수단보다 개인적 처벌을 선택하는 강오수의 마지막 태도를 통해 드러난다.

형사로서의 역할로부터 강오수가 끊임없이 흔들리며 그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처럼, 범인이면서 복수하는 자 오승하 또한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다. 오승하는 치밀한 계획에 따라 12년 전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을 처벌한다. 변호사라는 신분으로 복수할 대상과 밀접한 거리에서 처벌과정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은 철저한 악인의 특성이다. 그러나 오승하는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갈등하는 심리적 동요를 자주 겪게 된다. 오승하도 가장 가까운 인물들을 통해 복수하는 자의 역할에서 흔들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마왕>에서 복수를 감행하는 오승하의 목적에 갈등을 주는 인물은 서해인이다. 그녀는 유일하게 과거사건을 사실대로 진술한 과거 목격자이며, 현재 사건에 있어서 과거사건 환기에 필요한 매개체이다. 오승하는 서해인을 통해 잃어버린 어머니를 떠올리고 따듯함을 느낀다. 오승하는 도덕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범죄를 감행하는 범인이지만, 서해인에게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오승하를 향한 시선은 날카로운 비판보다 동정, 연민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러한 이유는 <마왕>에서 오승하가 범인으로서 역할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오승하는 계획된 복수가 완성되어갈 때 흔들리고 있는 모습을 표출한다. 또한 자신이 계획한 범죄행위들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에 대해 회의한다. 오승하는 공범 김영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 대해 심한 동요를 겪는다. 김영철은 12년 전 강오수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학교 폭력 피해자이다. 그는 자신을 대변해 강오수에게 항의하던 정태훈(오승하의 형)이 죽던 현장에 숨어 있었다. 그러나 김영철 역시 사실을 진술하지 못했던 기억으로 인해 죄책감에 시달려 왔다. 오승하는 김영철을 사건의 행동 대리인으로 세움으로써 범죄 사건에 동조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오승하는 복수가 완성될수록 어리숙하고 착하기만 했던 영철의 변해가는 과정을 통해 심리적 동요를 일으킨다. 초반부 영철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주었던 친구를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연약한 인물로 그려진다. 그러나 사건이 진행될수록 영철은 처벌하는 자로서 복수에 집착하기만 하는 악한 모습으로 변해간다. 이와 같이 오승하는 주변인물을 통해 복수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잃어버리게 된다. 결국 마지막 범행 (강오수를 12년 전 자신과 동일한 상황으로 만드는 것)을 완성했을 때 오히려 피해자가 된 강오수를 동정하게 된다.

### 3-3. 대립적 인물의 동일화

강오수가 오승하의 실체를 대면하는 것은 과거 가해자였던 자신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 강오수에게는 12년 전, 의도하지 않은 행위였지만 살인을 했으며, 온전한 대가를 치루지 못했다는 죄의식이 있다. 그러므로 오승하의 범죄 행위는 강오수의 무의식을 반영한다. 또한 강오수는 자신에 의해 누군가 죽었다는 사실, 그로 인해 가족을 잃은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거 기억을 은폐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 이는 12년 전,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인물들이 제거됨으로써 가능해지며, 그 과정의 최종 목적은 강오수의 아버지에게 향해 있다. 12년 전 사건에서 강오수에게 죄를 짓게 한 것은 아버지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형이 살인자가 되고, 심장마비로 죽는 것은 결과적으로 강오수를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오승하 역시 과거 사건에 대한 죄의식이 있는데, 형과 어머니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즉 형의 죽음이 어떤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한 것, 그로 인해 어머니가 자살함으로써 가족을 위해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었다는 데에서 오는 죄책감이다. 그러므로 오승하는 과거 사건으로 죄의식에 갇혀 있으며 자신의 죄의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거 사건을 재현하고 가해자를 응징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강오수와 오승하 모두 자신의 과거 기억으로부터 갇혀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작품에서 시각적 제시를 통해 의미화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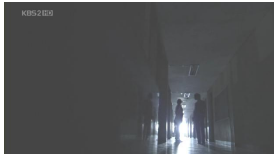


그림1



그림2

오승하와 서해인이 도서관 복도에서 정전 때문에 잠시 서있는 장면은 마치 어둠이 인물을 짓누르고 있는 듯하다.(그림1) 또한 강오수가 친구 순기의 죽음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는 장면이다.(그림2) 터널이나 철창에 갇힌 것 같은 장면의 반복은 문제의 해결을 찾지 못하는 인물을 표현할 때 사용된다.<sup>15)</sup> 터널 속에 있는 인물들은 마치 어둠에 갇힌 듯하며, 빠져나올 구멍을 찾고 있지 못한 듯 보인다. 또한 서해인의 대사를 통해서도 직접적으로 의미화 된다. ‘터널’은 서해인이 두 인물을 비유할 때 사용된다.<sup>16)</sup> 서해인이 바라 볼 때 강오수, 오승하는 과거 기억이라는 터널 속에 갇혀 있는 동일한 인물로 그려진다.

---

15) <마왕>의 프레임은 ‘갇힌’ 이미지를 형상화하기 위한 주요 장치로서 활용되면서 인물들이 처한 상황, 심리의 국면 등을 드러내는 데에 주력한다. (김소은, 『TV 드라마 <마왕>의 쇼트 및 시점 구성 방식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7집』, 2008, 354쪽.)

16) 앤서니 브라운 <터널>이라는 동화책이 직접 등장하여 과거기억에 갇혀 있는 심리를 표현해주기도 한다. 이 동화책은 오승하가 성당 봉사 장면에서 아이들에게 읽어주는 것으로 이후 서해인이 강오수와 오승하에게 자주 사용하게 된다.



그림3



그림4



그림5

결국 오승하의 범죄 행위와 그 과정들은 강오수의 또 다른 모습들이며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두 인물은 동일시된다. 강오수와 오승하가 마치 거울에 자신을 비춰 보는 듯한 시각적 제시는 서로 다른 인물이 동일시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두 인물은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표정이며, 얼굴의 한쪽 측면만이 나타나 있다. 두 그림을 연결시켜 보면 각각 상대방의 옆얼굴이 가려진 것 같은 형태로 앞을 향해 응시하고 있다. 강오수와 오승하의 각각 다른 편의 측면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결합하면 하나의 얼굴이 완성된다. (그림 3-4) 오승하와 강오수가 결합된 얼굴을 가운데 두면 두 인물은 상대방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강오수, 오승하는 각자 바라보고 있는 대상이 자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임을 말해준다. 동일한 상황에 놓인 인물은 상대방과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모습을 비춰본다. (그림5)<sup>17)</sup> 그들은 12년 전 사건과 동일한 장소인 폐차장에서 과거 사건을 그대로 재현한다. 강오수는 모든 사건이 오승하의 복수에 의한 사실을 알아내고 지금까지 지켜왔던 형사의 의무를 버린다. 그는 사회적 처벌이 아닌 개인적인 처벌을 위해 오승하를 만나기로 한다. 그러나 강오수는 오승하와 대면하고 그를 죽일 수 없음을 안다. 강오수와 오승하

17) 물론 이 장면들은 진행될 사건 관계의 국면을 부각시키고 집중시키는 측면에서 뚜렷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인물이 동일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그림3, 4가 작품 초반 1.2회의 엔딩 컷이라는 점, 그림 5가 마지막회라는 점에 착안하여 의도적 배치를 통한 암시적 기능을 하고 있음에 의미를 둔다.

는 서로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두 인물은 역할이 전도된 상태에서 과거 사건을 재현한다. 오승하는 강오수를 죽이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으나 죽음에 이르게 하며, 이로써 두 사람은 가해자이면서 피해자인 사실을 공유한 채 죽음을 맞이한다.

#### 4. 새로운 소재 활용과 주제의식의 강화 : 싸이코 메트리

##### 4-1. 사건해결의 지연 : 의문 증폭

<마왕>에서는 범인과 범죄 동기를 추리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혼동을 줄 요소들을 배치하고 있다. 그 중에서 추리 서사를 전반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싸이코 메트리’와 ‘타로카드’이다. 사건이 일어나기 전, 강형사에게 타로카드가 전달된다. 타로카드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되는 증거자료인 동시에 사건을 예고하는 경고자료이다. 또한 타로 카드는 인간의 기억을 읽을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싸이코 메트러 서해인을 연결시킨다. <마왕>은 ‘싸이코 메트리’와 ‘타로 카드’라는 비과학적인 소재들을 통해 수수께끼 과정의 흥미를 유발시키고 있다.<sup>18)</sup> 작품에서 강오수는 의문의 연쇄 살인 사건을 풀기 위해 싸이코 메트리 능력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서해인은 사건을 예측하고 풀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싸이코 메트러 서해인은 사건을 예고하고, 과거 사건을 읽어내는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한다. 우선 그녀는 현장에서 발견된 타로카드와 증거품의 잔상을 읽어냄으로써 발생 할 사건을 암시한다. 서

18) <마왕> 처럼 사이코메트리, ‘심령수사’를 다룬 작품은 많다. 대표적으로 일본 만화 ‘미스터리 극장 에지’는 고교생 에지는 사이코메트러로서 심리 프로파일링 전문가인 여형사 시마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나간다. 미국 드라마 ‘The Medium(고스트 앤 크라임)’은 사이코메트리 능력을 보유한 여성이 주인공이다. 그외에 스티븐 킹 ‘Dead Zone’, 미야베 미유키 ‘용은 잠들다’ 등이 있다.

해인이 보는 장면은 사전적 암시 기능을 하면서 예언한 사실들의 실현 여부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한다.<sup>19)</sup> 또 한 가지 서해인은 이미 발생한 사건과 관련된 단서들을 읽어냄으로써 문제해결의 힌트를 제공해준다. 그러나 서해인의 잔상은 과거 사건과 예고 될 일들이 혼합되어 존재한다. 즉 연속적인 시간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상태로 제시되기 때문에 의문은 증폭된다. 그러므로 서해인의 능력은 사건 해결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는 동시에 추리과정에 혼동을 일으키기도 하기도 한다.

S# 84. 타로카페 안(밤) — <플래시 컷>

- 검은 가죽 장갑을 끼고 <심판> 타로카드를 들고 있는 누군가의 손
-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감싸 안은 채 누군가의 발길질에 채이고 있는 교복 입은 소년(어린 영철,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 잡지에서 글자를(오수에게 보낸 편지 속 글자)가위로 오려내고 있는 남자의 손. 가위 손잡이 부분이 붉은 색 실로 꿰뚫어 놓여져 있다.
-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그 남자가 돌아보려는 순간.<sup>20)</sup>

<마왕> 1회

위의 예문은 첫 번째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나서 현장에서 발견된 타로카드에 남겨진 잔상을 읽어내는 부분이다. 이때 서해인의 잔상은 12년 전 사건을 재현하는 장면과 현재 일어난 살인 사건의 단서들에 대한

19) 서해인은 초능력자이며 타로카드를 통해 사건을 예고한다. 그러므로 이는 ‘점술적 사전 암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점술적 사전 암시’는 미래 실현이 확실한 암시로 예언이나 미래 지향적인 징후를 바탕으로 한다. 초감각적인 권력이나 힘이 그 실현을 실제로 보장하는데, 17세까지 드라마에서 주로 사용하던 사전 암시 방법이었으나 점차 예언에 대한 믿음이 현격히 퇴조 되면서 그 활용정도나 성격은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현대에도 여전히 점술적 예언에 대한 방법은 극적 긴장감을 부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B. 아스무트, 송진 옮김, 『드라마 분석론』, 서문당, 2000, 198~207쪽 참조)

20) 김지우, 『2007 한국방송작가상 드라마 부문 수상작품집』, 시나리오와친구들, 2008, 206쪽.

장면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장면에서 보여 준 정보와 사건이 연관되어 문제해결의 가능성을 갖게 하지만, 연결된 서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분절된 상태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접근이 불가능하다. 또한 각 분절된 장면을 통해 다양한 예측이 발생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 이는 서해인의 잔상은 중요한 단서의 일부분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그러므로 단서 일부를 통해 추리,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문제해결의 혼동을 일으켜 의문을 증폭시킨다.

S# 도서관 밖 한 곳(낮)

오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잔상을 일부러 심을 수가 있다면 반대로 잔상을 일부러 남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해인 그건 저도 알 수 없어요. 사람에 따라 잔상이 보이기도 하고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마왕> 10회

위의 예문은 잔상에 남겨진 단서들은 오해, 혼동을 일으키는 점들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어나는 사건이 예언하는 자와도 무관하지 않음을 암시하는 동시에, 조작된 잔상들을 남겨 둘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1)</sup> 그러므로 사건 예언의 실현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오는 극적 긴장감에서 사건 예언 자체를 의심함으로써 생겨나는 긴장감이 형성된다. 이 점은 시청자에게도 형사와 같은 정보 양을 제공해줌으로써 미스터리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범인이 누구인가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즉 주인공과 동등한 입장에서 서서 단서를 분석, 추리

21) <마왕>에서 오승하는 서해인의 싸이코 메트리 능력을 이미 알고 있다. 예를 들어 <마왕> 1회 오승하와 서해인의 첫만남 장면에서 오승하는 의도적으로 서해인의 등에 손을 대고 서해인의 반응을 살핀다. 서해인이 자신에게서 잔상을 읽을 수 없는 사실을 확인하는 장면이라 할 수 있다.

하게 한다.

#### 4-2. 문제해결의 가능성 제시 : 긴박감 조성

<마왕>에서는 시청자에게 주인공 보다 많은 정보의 양을 제공함으로써 긴박감을 부여해주기도 하는데, 이는 서해인의 잔상이 시각적으로 제시된다는 점에 있다. 즉 서해인은 강오수에게 잔상을 통해 본 것을 말로써 전해주지만, 시청자에게는 시각적 장면으로 전달된다. 사건은 강오수의 가까운 주변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데, 이때 시청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긴박감을 조성한다. 서해인이 읽어 낸 살인 사건의 단서가 되는 장면 안에는 강오수와 관련된 인물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서해인은 잔상에 떠오르는 인물들이 강오수와 어떤 관계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읽어낸 장면을 강오수에게 제공한다. 그렇기 때문에 강오수는 자신과 관련된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없다. 즉 예고된 장면들을 통한 추리는 연쇄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 확인하는 절차를 반복한다. 그러므로 <마왕>에서 형사 강오수는 예고된 사건을 해결할 수 없고 예언의 장면을 확인할 뿐이다. 시청자도 서해인을 통해 다음 사건과 관련된 장면들을 본다. 그러나 시청자는 장면에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S# 도서관 밖 한 곳(아침)

해인 타로카드에선 분명히 강형사님 받았던 것과 같은 타로카드가 보였어요. 책에선 사진이 보였구요.

오수 (긴장해서) 사진이요?

해인 네

오수 어떤 사진입니까?

해인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남자하고 여자요.

오수 사진 속의 인물은 모르는 사람이었구요?

위의 장면에서 서해인이 읽어 낸 잔상은 나석진과 최나희가 함께 찍은 사진이다. 강오수가 단서와 관련된 잔상을 묻기 전에 시청자는 서해인의 잔상을 볼 수 있다. 시청자는 이미 오승하가 나석진의 비밀을 이용하여 다음 사건의 계획과 희생자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강오수는 직접 잔상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진의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 또한 시청자는 서해인이 읽어 낸 잔상의 인물과 강형사의 관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 사건을 추리, 추적하는 강형사의 행동을 통해 적극 긴장감이 발생한다. 즉 자신의 주변 인물에 대한 희생을 감지하지 못한 형사의 행동을 따라가기 때문에 서스펜스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또한 서해인은 강형사에게 타로카드의 의미를 해석해주는데 이는 다음 사건의 예고를 암시하는 기능을 하는 동시에 작품의 진행 방향을 요약하는 역할, 즉 해설자 기능을 하는 것이다. 이 점은 사건을 추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난해함을 해소하기 위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서해인의 내레이션과 함께 제시되는 장면들은 사건을 추리하는데 있어서 암시적 역할을 하고 있다. 서해인의 내레이션은 강오수에게 사건과 관련된 단서들을 설명해줄 때 활용된다. 그러나 동시에 제시되는 장면은 강오수는 획득하지 못하는 정보이다. 그러므로 시청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줌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림6



그림7



- ① 해인(E) 신화와 교리에 따르면 태초에 사탄은 하나님 다음의 제2인자였고,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가운데 우두머리였으며 아름답고 사랑 받는 그 이름 루시퍼였어요.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맡은 일은 시험과 유혹을 사용하여 인간들의 영적 성장을 증강시켜 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사탄은 원래 인류의 교사였던거죠. 이름을 ‘빛의 수호자’라는 뜻인 루시퍼로 지은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었어요.

<마왕>2회

- ② 해인(E) 악마 메비스토펠리스에게 자신의 영혼을 맡기고 현세에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해요. 그래서 순결한 소녀를 얻게 되고 결국 소녀를 파멸시켜요. 자신도 파멸로 치닫고요.

<마왕>3회

①의 내레이션과 동시에 제시되는 장면은 오승하가 벤취에 홀로 앉아서 햇살을 받고 있는 장면이다.(그림6) 내레이션은 사탄에 대한 설명이며, 루시퍼가 ‘빛의 수호자’ 였다는 점에서 오승하를 암시하고 있다. ②의 내레이션은 강오수에게 온 메시지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파우스트에 대한 내용이다. 이때 장면은 성당에 앉아 있는 오승하의 뒷모습이다.(그림7) 이처럼 서해인의 내레이션은 강오수에게는 단서자료에 대한 해설일 뿐이지만, 시청자에게는 사건이 오승하와 관련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므로 시청자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주인공 보다 우위에서 사건을 추리, 분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건의 범인인 오승하가 단순히 악인으로써 명명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즉 개인적 복수를 위해 범죄행위를 하지만, 태초의 사탄의 역할이 달랐던 것처럼 오승하에게 보다 근원적인 문제 원인이 있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중심인물의 역할이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 4-3. 기억의 재구성과 허구성

서해인은 과거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을 통해 사건 해결에 실마리를 제공한다. 강오수에게 서해인은 범죄 사건을 해결하는 실질적 분석가이다. 서해인이 증거 자료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를 읽어낼수록 문제 사건에 가깝게 접근해가는 것이다. 한편 서해인은 강오수를 12년 전 과거사건으로 불러내는 기능을 한다. 오승하는 그녀가 그린 타로카드를 이용하여 서해인을 사건에 의도적으로 개입시킨다. 오승하는 서해인에게 잘못된 잔상을 심어두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12년 전 사건 관련자들을 호명한다. 이는 12년 전 사건에서 유일하게 사실을 진술했었던 서해인을 통해 과거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것이다. 오승하의 진실은 자신의 형이 피해자였고 강오수가 철저한 가해자였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강오수에게 인지시키며 죄를 묻는 것이다. 그러나 서해인은 오승하가 원하는 사실만을 보여줄 수 없다.

서해인의 싸이코 메트리 능력은 촉각을 통해서 드러난다. 즉 사물을 접촉함으로써 관련된 인물의 기억을 읽어낸다. 기억은 사람에 따라 재구성되기 때문에 각각 다른 사실들을 만들어 낸다.<sup>22)</sup> 12년 전 동일한 사

22) 기억행위를 과거의 재현이 아닌 구성작업으로 보는 구성주의 기억이론을 적용해볼 수 있다. 루쉬는 기억이 체험 사실과 그 내용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상호작용에 관한 이야기들의 진행 속에서 생겨난 인식구조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고 주장한다. 여기에서 삶을 회상하며 서술하는 이야기들이 유일무이한 개인의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주되곤 하는 ‘실제’ 삶의 이야기일 수는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슈미트는 기억행위와 과거와 독립적 관계를 맺고 있으며 대상에 대한 지시관계를 필요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우리는 과거를 가지고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과거의 상태에 대해 만들어낸 표상들이 구성해내는 이야기들로 작업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기억행위들의 지시차원은 과거가 아니라 이러한 표상들이다.” 기억은 회상하는 사람의 현재 기분이냐, 동기, 또는 의도 등의 지배를 받으며 구성된다고 할 수 있다. (정향균, 『무네모시네의 부활』, 뿌리와 이파리, 2005. 140~142, 참조)

건을 경험하지만, 인물들은 자신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기억을 갖고 있다. 가해자 입장의 강오수가 기억하는 과거사건과, 영철이 기억하는 과거 사건은 차이점을 보인다는 것이다. 강오수의 기억에서 사건의 초점은 실수에서 유발된 사고 였다는 사실에 있다. 그러나 숨어서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던 영철의 기억에서, 강오수의 행위는 살인으로 비춰진다. 또한 강오수의 아버지의 기억 속에는 아들이 저지른 범죄를 덮어주려고 했다는 사실만이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그러나 싸이코 메트러 서해인의 잔상은 과편화된 기억을 보여준다. 이는 진정한 기억이 연속적 서사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불연속적이며 분절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임을 암시한다. 싸이코 메트러 서해인의 잔상에서 과거의 사건은 기억의 이미지로 시각화되는 특성을 보인다. 서해인은 사건에 이용된 타로카드나 관련 인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과편화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과관계로 구성되지 않은 이미지들의 조각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과거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서해인이 읽어내는 잔상은 어느 편에서만 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기억이란 기억해내는 주체의 욕망에 의해 연속적 서사로 재구성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23)</sup> 강오수와 오승하는 과거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상당 부분 서해인의 잔상에 의존한다. 강오수는 서해인의 잔상을 통해 범인을 찾고자 하고, 오승하는 잔상을 이용해 강오수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한다. 싸이코 메트리라는 매개가 비과학적, 비합리적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과거가 부재하는 상황에서 과거를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방법으로써 서해인의 잔상은 가장 사실에 가까울 수 있기 때

23) 기억의 과정에서 무엇이, 어떻게 재현되는가 하는 문제는 기억하는 주체의 현재적 관심과 기억행위의 현재적 맥락이 개입된다. 그러므로 개인이든 집합이든 기억은 그것이 존재하는 시공간에 따라 폭넓은 변이를 보이게 된다. 그 결과 단일 사건에 대해서 상호모순적인 복수의 기억이 성립할 수 있다. (왕치현, 「기억, 현재 그리고 모델」,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2007, 178쪽.)

문이다.

준표 사실대로 기사를 쓰면 돼죠

승하 사실에 대한 해석은 관련된 사람의 수만큼은 존재합니다.

<마왕> 3회

민재 수사라는 건 어디까지나 사실을 근거로

오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가설들을 세우고 그것을 증명해가는 과정이 필수야. 해인씨는 그 과정을 돕는 조력자고

오수 눈으로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게 보이는 거야.

<마왕> 4회

위의 대화들은 ‘사실’이 해석하는 사람의 욕망과 의도에 따라 구성되기 때문에 단수가 아닌 복수로 존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진실(사실)은 기억하는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법적인 정당성을 부여 받을 때조차 그것은 진실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본다면, 12년 전 사건이나 현재 사건은 해석 주체에 따라 진실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작품 초반부 인물들의 대사는 사건의 진실을 판단하는 잣대에 오류가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두 인물은 범인을 쫓는 자, 복수를 하는 자라는 각자의 위치에서 문제를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전제하고 있는 의미는 상대편(범인, 복수대상)에만 적용되는 문제는 아니다. 강오수와 오승하가 서해인을 매개로 해서 찾았던 것은 단일한 사실(진실)이었다. 하지만 서해인의 잔상이 보여주는 진실은 사실이 단일하지 않다는 것, 즉 오승하의 기억이나 강오수의 기억은 둘 다 완벽한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진실을 찾던 오승하와 강오수가 결국 얻게 된 것은, 어떤 누구도 일방적인 가해자가 아니라는 사실일 것이다. 즉 서해인은 오승하와 강오수로 하여금 과거와 대면하게 하는 역할을 하여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들이 진실이 아님을 확인시킨

다. 결국 서해인은 객관적 거리를 확보하여 시청자가 편향된 인물을 지향하고 감정적 동일시 이루는 과정을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서해인은 피해자와 가해자, 선인과 악인으로 구분하여 어느 한 쪽에 감정적 동일시하는 요소를 일정부분 차단함으로써 선악, 진실에 대한 문제에 보다 진지하게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고 할 수 있다.

## 5. 결론

지금까지 살펴 본 바와 같이 <마왕>은 추리 서사적 요소를 갖춘 추리 드라마이다. 기존 추리 드라마가 범인의 추적, 해명, 사건 해결이라는 공식적인 규칙을 적용하는 데 그쳤다면 <마왕>은 구조, 인물형, 소재적 차원 등에서의 변화를 활용하여 보다 다른 차원의 드라마를 시도했다고 보인다. 이는 연속극 형태 안에서 추리 서사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단일한 구조보다 이중구조를 활용함으로써 흥미, 긴장감을 유지한 점에서 볼 수 있다.

<마왕>은 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범인을 검거하는 과정을 풀어나가는 수수께끼 플롯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범인이 누구인가’에 초점을 둔 문제해결 방식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동기, 과정’에 초점을 둔다. 여기서 종결되지 않은 사건, 증폭되는 의문, 문제해결 지연이 반복된다. 이와 같은 반복은 하나의 연결고리를 형성하며 복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이 작품의 또 다른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마왕>은 표층적으로는 형사 강오수가 의문을 풀어가며 범죄사건을 해결해가는 수수께끼 플롯이지만, 그 모든 사건이 강오수의 과거 인물과 관련된 오승하의 복수라는 점에서 사건 해결 과정 속에서 복수가 드러나는 형태를 띠고 있다. 즉 수수께끼 플롯을 표층화 시키고 있지만 그 심

층에는 복수플롯을 내장하고 있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이 작품은 전통적 추리 서사에서 요구하는 인물의 역할 범주를 이탈하여 변화된 인물형을 보여 주고 있다. 형사, 범인의 선악 대립 구도를 깨뜨리고 관계의 역전을 통해 고정적 역할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있다. 결국 대립적 인물이 동일화 되는 과정을 통해 선과 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그러므로 선악 자체에 대한 진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추리장르의 일반적인 특징인 오락성, 대중적 흥미 유발이라는 차원을 넘어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시도를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싸이코 메트리’ 라는 새로운 소재와 결합하여 다른 추리물과의 변별성을 높이고 있다. <마왕>에서 사건해결과 관련하여 ‘싸이코 메트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작품에서 실질적으로 사건의 단서를 추리, 분석하는 인물은 싸이코 메트리이다. 싸이코 메트리가 제공하는 정보들은 의문을 증폭시키기도 하고, 예측결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게도 한다. 서해인을 통해 제시되는 단서들은 시청자와 작품 속에서 문제를 푸는 형사에게도 다른 층위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즉 싸이코 메트리가 읽어내는 잔상은 문제를 해결하는 형사에게는 말로써 전달되지만, 시청자에게는 시각적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주인공과 시청자 사이의 간극이 생겨난다. 이 점은 보다 다양한 예측 결과들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호기심을 자극하고 긴장감을 극대화 시킬 수 있다. 이는 텔레비전 드라마에서의 장르 개발측면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으며, 다양화 된 드라마의 가능성을 열어 둔 시도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1. 기본자료

TV 드라마 <마왕> 총 20회 분, 2007년 3월~ 5월 24일 KBS 방송

KBS <마왕> 홈페이지

김지우, <마왕> 대본, 『2007 한국방송작가상 드라마 부문 수상작품집』, 시나리오와 친구들, 2008.

### 2. 논문과 단행본

김남훈, <마왕> 미궁으로 인도하는 Keyword, 『드라마틱』 20호, 페이퍼하우스, 2007, 40~45쪽.

김소은, 「TV 드라마 <마왕>의 쇼트 및 시점 구성 방식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27집, 한국극예술학회, 2008, 341~382쪽.

도정일, 「20세기의 오이디푸스」, 『문학동네』 1997, 가을, 454~465쪽.

박광자, 「페터누씨의 추리문학론」, 『뫼히너와 현대문학』, 한국뫼히너학회, 1989, 209~219쪽.

백대윤, 「한국추리서사의 문화론적 연구」, 한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6, 4~187쪽.

이정옥, 「1950~60년대 추리소설의 구조 분석」, 『현대문학이론연구』, 현대문학이론학회, 2001, 183~202쪽.

이정옥, 「추리소설과 게임의 플롯」, 『현대소설의 플롯의 시학』, 한국소설학회 편, 태학사, 1999, 197~217쪽.

왕치현, 「기억, 현재 그리고 모델- 프리쉬의 드라마 <안도라>의 구조」, 『브레히트와 현대연극』, 한국브레히트학회, 2007, 226~245쪽.

정형균, 「추리소설의 경계 변천 고찰(1)」, 『뫼히너와 현대문학』 26집, 2006, 167~201쪽.

대중문학연구회(편), 『추리소설이란 무엇인가』, 국학자료원, 1997.

B. 아스무트, 송전 역, 『드라마 분석론』, 서문당, 2000.

이브 뢰테르, 김경현 역, 『추리소설』, 문학과지성사, 2000.

윤석진, 『김삼순과 장준혁의 드라마 공방전』, 북마크, 2007.

슬라보예 지젝, 김소연·유재희 역, 『뽀딱하게 보기』, 시각과언어, 1995.

정형균, 『무네모시네의 부활』, 뿌리와이파리, 2005.

## Abstract

### A Study on Characteristic Detective Narrative in TV Drama <The Devil>

Moon, Sun-Young

TV drama <The Devil> is the ratiocination style drama which changes a traditional ratiocination format. As the drama which applies the rule which is official the existing investigation pole is tracking, explanation and event solution of the criminal one many sides applied the change from structure, the person style and subject matter dimension etc. and attempted the style drama of a more different dimension, is visible.

<The Devil> solves a problem in the center of homicide accident and arrests the criminal the process which releases and is a ratiocination pole of riddle structure. But it pointed who is the criminal not the process and method. From here the event which happens chain, the doubt which is amplified, the problem solving delay is repeated. Also this work is disconnected and role category of the person which demands from traditional ratiocination narration the person style which changes is to seem. The process where the opposing person is identified finally leads and proposes a doubt about the line and evil.

With the subject matter which is unique 'psycho maul trees' is this combines and raises the distinction characteristic of the different ratiocination pole. From relates with an event solution and 'psycho maul trees' major role. The psycho maul sprouts to read and the afterimage in the criminal case which solves a problem with end is delivered, in the watching person the gap between of the hero and the viewer originates because being presented time.



Therefore with asking the question which is sincere about good and evil oneself, the entertainment which is a feature which ratiocination style is general, goes over the dimension which is a popular interest mortar indication curiosity the insect family hour height is to seem reading. This will be able to give meaning which is affirmative from the style development side from teleplay, puts the questionable matter will be possibility from the point which is a reading to open the possibility of the drama which had become diversification. (Key words: Detective Narrative, Dual structures, the condensed water pole, TV drama, psycho maul tree, memory)

위 논문은 2008년 10월 30일 투고되었고, 2008년 12월 1일 심사 완료 후, 12월 2일 게재가 확정되었음.